

칼럼 Column

도서관주간과 세계학교도서관의 날

학교에서 3월 초반은 학교도서관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느라 분주한 때이다. 올해 1년간 우리 도서관에서 주관할 행사 계획 중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동참 행사로 “도서관주간”을 시기적으로 제일 먼저 하게 된다.

올해 43회를 맞는 “도서관주간”은 그 취지를 무엇보다도 도서관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도서관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올바르게 생각하고 있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집 근처의 공공도서관을 가끔 이용하는데 도서관 전체 총 327석 가운데 주로 책을 대출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종합자료실은 36석으로 4층에 위치하고 있다. 반면 주민의 공부방 기능을 하는 열람실은 108석으로 2층에 위치하고 있다. 종합자료실은 소장 자료에 비하여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서가 사이의 간격이 너무 비좁아서 옆으로 두 사람이 부딪치지 않고는 다니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

라 구석 모퉁이를 돌아 이동하려면 한 사람이 간신히 비집고 통과해야 한다. 또한 어느 때 오더라도 좌석은 거의 빈 자리가 없다. 다행히 내가 찾고 있는 자료가 서가에 꽂혀 있어서 짜증스러운 마음을 달래며 곧장 나오곤 한다.

몇 해를 지켜보니 자료실의 공간 확장은 시급하게 서둘러야 할 문제 같은데 과연 올해는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도서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주민의 요구, 예산 문제 등 아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척 많아 그렇겠지 하고 너그럽게 추측해 본다. 그런데 개관 25주년을 기념하여 컬트전시회, 북아트 작품 전시회, 개관일 엽 배포 등을 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개관 기념으로는 종합자료실을 확장하고 2층으로 이전했어야 마땅한데... 안타까운 마음에 한껏 욕심을 부려 본다.

“도서관주간” 동안 전국의 도서관이 포스터와 표어를 붙이고 한두 가지 이상의 행사를 할 것이다. 작년 포스터에 담긴 주제는 “도서관 내가 찾은

최고의 행복입니다.” 표어는 “세상을 바꾸는 힘 도서관에 있어요”, “꿈이 열리는 창, 도서관”으로 그야말로 도서관은 새로운 인생을 열어 줄 수 있는 행복한 곳이어야 하는데... 도서관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모습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과제를 풀어가는 노력도 담겨 있어야 하지 않을까?

아직 대부분 학교 관리자들에게 학교도서관은 교수학습정보센터로서 도서관 활용 수업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책 읽고 공부하는 곳이다. 몇몇 사서교사들은 도서관 리모델링을 하며 도서관 자료실에 칸막이 책상을 비치하고 방과 후 자율학습 공간으로 운영하려는 뜻을 굽히지 않으시는 교장과 종종 갈등을 일으킨다.

도서관의 존재 목적과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는 문제는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1999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9회째가 되는 “세계학교도서관의 날(International School Library Day)”은 세계 여러 나라가 학교교육에서 도서관

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시작하였다고 한다. 해마다 무엇보다 학교도서관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교육행정당국과 지역사회 나아가 사회 일반에게 홍보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바로 정립하고 현실 개선을 위한 노력 속에 작은 변화를 기대하며, 앞으로 있을 “도서관주간”과 “세계학교도서관의 날” 행사를 준비해 보려고 한다. 

이 순 옥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회장
청량고등학교 사서교사
soonogi@paran.com

